

손흥민의 '보너스 시즌'...EPL, 3개월 만에 재개

정상 시즌이면 부상으로 종료...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도전
오늘 새벽부터 새 출발...토트넘, 오는 20일 새벽 맨유와 첫 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2시 아스톤 빌라-세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재개한다. 이어 4시15분부터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뜨거운 경기가 펼쳐진다. 축구팬들의 새벽이 다시 바빠지게 됐다.

가장 기다렸던 것은 역시 손흥민(28)이 다시 뛰는 모습이다. 일정이 정상적으로 소화됐다면 부상으로 일찌감치 종료됐을 시즌인데, 사라졌을 시간이 다시 이어진다. 손흥민에게는 보너스 같은 추가시간이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전 4시15분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너무나 중요한 경기로 시즌을 다시 시작한다. 두 팀의 이득값만으로도 무게감이 상당한 매치업이지만, 두 팀의 '현실적 목표'를 고려하면 더더욱 비중이 큰 경기다.

리그 중단 전까지 토트넘은 11승8무10패 승점 41로 8위에 그치고 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에 올라 있는 첼시(승점 48)와의 격차는 7점으로, 아직 포기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팀들까지 다 추월해야 하는데 5위 맨유(승점 45)도 그중 하나다. 모리뉴 감독의 전 소속과 현 소속 팀의 대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손흥민의 복귀전으로 토트넘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손흥민은 지난 2월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오른팔 골절 부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활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었고 실전감각 회복 등을 고려할 때 2019-2020시즌은 물 건너 갔다는 부정적 전망들이 수면 아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리그 전체를 멈춰버리게 만들면서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벌었다. 부상은 회복됐고 애초 리그 종료 후에 받으려했던 기초 군사훈련까지 마치면서 심적으로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뭉개체를 완벽하게 갖추고 복귀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천군만마다. 주축들의 줄부상으로 베스트 전력 가운데 애를 먹었던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해

리 케인과 무사 시스코 등 부상자 컴백과 함께 시즌 막바지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일단 홈에서 열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여러모로 맨유와의 경기는 '박매치'다.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앞선 흐름을 잘 이어갈 필요가 있다.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손흥민이 정규리그에서 남긴 기록이 9골7도움이다. 각종 대회를 다 합쳐서는 16골9도움을 작성했다.

재개된 후 1골만 더 추가해도 손흥민은 4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4골을 더 넣으면 지난해 20골에 이어 2시즌 연속 20골 고지를 밟는다. 토트넘의 잔여 경기는 9경기. 무리한 지향점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은 건강하게 필드를 누비면서 어렵사리 주어진 기회를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손흥민이 부상을 입었던 경기가 2월17일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손흥민이다. 의욕은 타오르겠으나 조바심을 낸다면 자신도 팀도 좋을 것 없다. 손흥민은 2020-2021시즌도 뛰어야 한다.



'아시아 톱 랭커' 임성재, 시즌 2승 도전

PGA투어 'RBC 헤리티지' 오늘부터 나흘간 열전 돌입

남자골프 아시아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임성재(22·CJ대한통운)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710만달러)에서 시즌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번째 대회인 RBC 헤리티지가 1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허버타운 골프링크스(파71·7099야드)에서 열린다.

RBC 헤리티지에는 세계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 나아가 출전 선수 154명 중 114명이 PGA 투어 우승 경험이 있어 어느때보다 치열할 우승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많은 스타들 중에서 임성재도 주목 받는 선수다. 임성재는 PGA 투어 2019-20 시즌 15개 대회에서 우승 1회, 톱10 6회 등의 성

적을 올리며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신인왕에 이어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다.

임성재는 코로나19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지난주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10위를 마크했다. 이에 힘입어 임성재는 15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2계단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이로써 임성재는 일본의 마쓰야마 히데키(23위)를 밀어내고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랭킹을 기록하게 됐다.

최근 출전한 3개 대회 연속 톱10에 진입한 임성재에게 PGA 투어의 평가도 높다. PGA투어는 RBC 헤리티지 파워랭킹에서 임성재를 12위에 올려놨다. PGA 투어는 "임성재는 투어 중단 전 실력을 유지하면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저했다"고 설명했다.

임성재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톱 랭커들을 넘어야 한다.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서 공동 23위에 그친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킷탈라 당한 2위 윤람(스페인) 등은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이번 주 세계랭킹 4위로 한계 내러 앉은 브룩스 켈카(미국)도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 중 한 명은 저스틴 토마스(미국)다. 세계랭킹 3위, 페덱스컵 랭킹 2위인 토마스는 이번 시즌 9개 대회에서 2승을 수확했다. PGA투어는 토마스의 이번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파워랭킹 3위에 올려놨다.

임성재 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최경주(50·SK텔레콤)를 비롯해 강성훈(32), 안병훈(29), 이경훈(29), 김시우(25·이상 CJ대한통운) 등도 출전한다. 최경주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10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이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전에서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한 뒤 포수 강민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끝판왕' 돌아왔다...오승환, 통산 400세이브

두산전 1이닝 2볼넷 무실점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라는 대기록과 함께 본래의 자리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오승환은 지난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원정 경기 9회말 마운드에 올라 2사 후 연속 2볼넷을 내줬지만 이유찬을 3루수 파울플라이로 잡고 삼성 복귀 후 첫 세이브이자 한미일 통산 40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오승환은 지난 2013년을 끝으로 KBO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 진출했다. 2014년부터는 한신 타이거스에 입단해 일본 프

로야구를 평정했고, 2016년에는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시작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콜로라도 로키스를 거쳤다.

지난해 시즌 중 콜로라도에서 방출된 오승환은 삼성과 계약하며 전격적으로 KBO리그 복귀를 알렸다. 해외 원정도박으로 받은 72경기 출장정지에 따라 실제 국내 마운드를 밟은 것은 지난 6일 키움 히어로즈전이었다.

그러나 허삼영 삼성 감독은 "당분간 적응을 위해 편안한 상황에서 등판시킬 것"이라며 유급민에게 뒷문을 열었다.

그러던 중 16일 두산전에서는 오승환이 본래 위치인 마무리로 컴백,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400세이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단 6명 밖에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다.

아직 오승환의 컨디션은 완벽하지 않다. 복귀 후 등판한 4경기에서 꼬박꼬박 주자 2명 이상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 앞선 2경기에서는 1점씩을 빼앗기기도 했다. 평균 자책점은 4.50(4이닝 2자책),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더 좋아질 여지도 남아 있다.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그만큼 코칭스태프의 확신이 있다는 뜻이다. 오승환의 존재만으로 만들어지는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다. 최지광-유급민-오승환으로 이어지는 삼성 불펜의 필승 공식은 앞으로 상대 팀들에 공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림픽종목국제연맹총연합회 '거버넌스' 평가

세계태권도연맹, 'A2그룹' 승격

세계태권도연맹(WT)이 올림픽종목국제연맹총연합회(ASOIF)의 거버넌스 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A2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ASOIF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 2020 도쿄 올림픽 33개 종목 중 복싱, 가라테를 제외한 31개 종목의 2019-20 시즌 거버넌스 평가를 A1, A2, B, C의 네 그룹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WT는 A2그룹에 속해 2017-18 시즌 B그룹에서 한 단계 승격했다. WT는 ASOIF 평가 시스템이 시작된 2016-17시즌에는 C그룹에서 시작해 세 번째 평가에서 A2그룹까지 올랐다.

A2그룹에는 WT를 비롯해 국제농구연맹, 국제펜싱연맹, 국제탁구연맹, 국제레슬링연맹, 국제육상경기연맹, 국제요트연맹, 국제트라이아슬론연맹 등 8개의 연맹이 속했다.

WT관계자에 따르면 WT는 평가 지표인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스포츠 개발 및 화합과 협력, 컨트롤 메커니즘의 5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투명성 부분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WT는 외부 전문가들을 각분과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임명하고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 재정의 투명성과 사업 지속성을 발전시켰다.

실제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WT는 남자 15명, 여자 15명의 심판을 배정, 올림픽 종목 사상 처음으로 성평등을 실현했다. 또한 국제 스포츠연맹 처음으로 전세계 난민과 불우 청소년을 돕는 '태권도 박애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조정원 WT 총재는 "WT는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ASOIF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모범적인 국제연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ASOIF의 평가의 A1그룹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 국제수마연맹, 국제축구연맹, 국제테니스연맹, 국제사이클연맹, 국제레슬링연맹 등 6개 국제경기연맹이 포함됐다. B그룹에는 국제체조연맹, 국제하키연맹, 국제배구연맹 등 11개 연맹이, C 그룹에는 국제유도연맹, 국제수영연맹, 국제역도연맹, 국제서핑협회 등 6개 경기단체가 속했다.

B.뮌헨, 분데스리가 8연패 확정 'V30'

베르더 브레멘에 1-0 승...레반도프스키 31골 득점왕 예약

해외축구 팬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바이에른 뮌헨 걱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차피 우승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만큼 뮌헨이 강하다는 방증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진행된 2019-2020 시즌에도 다르지 않았다.

뮌헨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베르더 브레멘과의 2019-2020 독일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전반 43분에 타진 간판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이날의 결승골이었다.

24승4무4패로 승점 76점이 된 뮌헨은 2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승점 66)와의 격차를 10점으로 벌리면서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뮌헨은 시즌 동료 때까지 2경기가 남아 있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3경기를 남겨놨는데, 도르트문트가 3경기를 다 이기고 뮌헨이 2경기를 모두 패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됐다.

이로써 뮌헨은 2012-2013시즌 이후 무려 8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 방패를 차지하게 됐다.

통산 정규리그 우승은 30회, 이상할 것도 없이 독일 최고 기록이다.

참고로 뮌헨은 DFB포칼(19회)과 독일 슈퍼컵(7회)에서도 가장 많이 정상에 올랐다.

팀의 우승을 확정짓는 상징성 있는 득점을 터뜨린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31번째 골로 득점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위는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로 25골을 기록 중이다.